마음충만 충전소 ‘태초’

(요한복음 1:1~5)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음충만 충전소 ‘태초’>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충만 충전소 ‘태초’

요즘 전기차가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나 대형마트의 주차장 한쪽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기차의 충전을 위해서는 전용의 충전시설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태초’라는 충전소로 가지 않으면 충만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16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에 우리는 그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온 은혜는 예수님의 충만으로 우리 또한 충만해지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은혜는 나를 채우고 난 뒤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필요한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넘쳐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상태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충만함의 내용들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 돈 많이 벌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합격하는 것과 같은 일들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

면서 평생 노력하지만, 충만해질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충만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이 없는 삶에는 원초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백으로 지어졌습니다. 마치 스위치가 켜져 있는 진공청소기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채우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진공청소기를 보면 먼지를 모으는 종이봉투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느 날 욕실 바닥의 머리카락을 쉽게 청소하려고 진공청소기를 사용했는데 바닥에 있던 물기가 함께 빨려 들어가면서 봉투가 젖어서 찢어졌습니다. 이처럼 청소기는 그 자체로는 빨아들여야 할 대상을 가리지 못합니다. 스위치가 켜져 있는 청소기는 일단 흡입구에 닿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이렇게 육체로 접하는 모든 대상을 마음에 담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은 일이 안 풀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켜져 있는 진공청소기 같은 마음으로 빨아들여서는 안 될 것을 빨아들였기에 내부의 종이봉투가 찢어지듯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잘 차려놓은 식탁 위에 진공청소기를 들이대면 그것이 음식인줄도 모르고 다 빨아들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을 절대로 빨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으로 세상을 빨아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넘쳐나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충만함 후에 넘쳐나는 부분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넘쳐나고 있기에 빨아들이려는 힘은 더 이상 작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평강과 기쁨가운데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만함으로 채워진 뒤에 넘쳐나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의 삶이고 복지의 삶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충만함은 목적이나 결과가 아닌 출발점입니다.
배가 고프면 위를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하고, 기름이 없는 자동차는 주유소로 가야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마음의 충만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진정한 충만을 가능하게 하는 충전소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진공청소기와 같은 마음으로 닥치는 대로 빨아들여서 채우고자 합니다. 청소기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들어오면 봉투가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들어오게 되면 아프고 괴롭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충전소의 이름이 바로 '태초'입니다.

세상으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한 마음은 절대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음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만 여전히 구분된 영역입니다.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세상에서 빼내어서 태초로 보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태초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본문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 세상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태초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태초는 충만함을 활용할 수 있는 충전소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태초라는 말을 들으면 인간의 흔적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신비한 침묵이 흐르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란 완전히 세상 밖에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창세기에서 언급된 태초가 피조세계 즉 세상 역사의 첫 출발점이라는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 언급되는 태초는 마음의 충만을 위한 충전소이자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향해야 될 세상 밖에 있는 장소로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갑니다. 그러면 수원을 지나고 천안을 지나고 대전 등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본 달이 수원에서도 동일하게 보이고 천안에서도 보이고 대전에서도 보입니다. 장소불문 시간불문하고 보이는 달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태초와도 같습니다. 아담 때에도 태초는 있었으며, 노아의 홍수 때에도 태초는 있었으며, 아브라함이나 모세 때에도 태초는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시대가 바뀌어 신약시대에도 중세시대에도 현재도 동일하게 태초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초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계시며 서로를 기쁨으로 채우고 계셨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할 태초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의 바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일체되심 안에 계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림을 통해 태초라는 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마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참여하게 되어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충만해질수 있다는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언어의 특성 때문입니다. 언어는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장님이 김 과장을 향해 "김 과장! 참 잘했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이

짧은 칭찬 속에는 그동안 김 과장이 해왔던 일들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누구에게나 같지는 않습니다. 축구선수에게는 골을 잘 넣는 것이 성공이지만, 회사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관련된 프로젝트가 흑자를 냈을 때에 성공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둑들에게도 성공은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그릇에 국도 담을 수 있고 밥도 담을 수 있듯이 언어에는 다양한 내용이 맥락에 따라 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설 속에 작가의 영혼이 담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스란히 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과 생각과 마음과 뜻을 놓치지 않고 담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후에야 하나님을 담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담고 일체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으셨기에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고 뜻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두 받아들이시며 사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전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을 경청하고 그대로 따르는데 마음에 거슬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실수하실 리도 없고 그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실 리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얼핏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말씀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셨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언어가 내용을 담고 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사랑과 관심을 온전히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이시는 관계가 영원 전부터 지속되며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넘침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이 바로 창조였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관심거리가 생기셔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이외에는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받아들이시고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에서 발생

하는 충만하고 넘치는 기쁨으로부터 창조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쏟는 사랑과 관심이 넘쳐나는 부분에서 생겨난 존재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바다나 대관령과 태백산맥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는 사랑과 관심이 충만하고 넘쳐나는 기쁨으로부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정치나 경제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기 일쑤입니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일본의 아베 수상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넘쳐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한 우주와 지구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영원 전부터 오직 예수님뿐이셨습니다. 예수님께 쏟으시는 사랑과 관심이 충만하고 넘쳐남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아니면 어떤 것도 생겨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누리시는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시되 영원히 주십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5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곧 생명이시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것은 예수님뿐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쏟으시는 넘쳐나는 사랑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인격으로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또한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로미오에게는 줄리엣이 태양이고 빛이었습니다. 로미오 주변에 여자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로미오의 마음에 보였던 여자는 줄리엣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본래 사람이라면 마땅히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극을 보러 가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조명을 받는 배우만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결혼한 사람이라고 해서 배우자를 빛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을 빛으로 보는 가운데 결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빛으로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우자와 자녀를 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본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빛으로써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대상을 빛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도심에서 별이 보이지 않듯이 마음에서 다른 대상들을 빛으로 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마음의 충만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생명으로 여기셨고 빛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지실 분은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갈 이유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곧 살아갈 이유입니다. 나인 성 과부에게 외아들은 생명이었습니다. 또 사업하는 사장님에게는 사업이 생명입니다. 축구선수가 다리를 다쳐 더는 시합에 나갈 수 없게 되면 선수로써의 생명이 끝났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을 생명이자 빛으로 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이자 빛으로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생명과 빛으로 여기는 대상들이 즐비합니다. 세상의 대상들을 빛으로 보는 동안에 하나님을 빛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14절의 후반부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란 예수님에게서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의 변화산 사건 때에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하였습니다. 14절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발산되는 빛이 예수님을 뚫고 나옵니다. 이것을 독생자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살펴 본대로 태초부터 존재한 것이었습니다. 태초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바깥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가 되시는 삼위일체를 통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마음의 생명과 빛으로 모셔 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충만한 삶을 살기위해서 마음을 태초로 보내야만 합니다. 피조세계에서는 충만함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자체는 충만함이 넘쳐나는 부분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은 육체와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지성소가 구분된 장소였듯이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 구분되어서 태초로 보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만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스위치 켜진 진공청소기와 같이 육체가 접하는 세상을 막무가내로 빨아들인다면 마음

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공청소기가 날카로운 못을 빨아들였다고 생각해보세요. 빨려 들어간 못이 이윽고 내부의 종이봉투를 찢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태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음을 보내는 것이 곧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죽은 마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게 되고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이 하늘이 바로 태초입니다.

태초는 마음의 충만을 위한 유일한 충전소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넘침을 통해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태초로 가서 충만함을 얻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관심이 예수님을 통과해서 넘쳐나게 됩니다. 이 넘쳐나는 부분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충만은 삶의 본전이고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에서 마음에 충만함이 없이 진공청소기와 같이 빨아들이는 상태에서는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마주하기에 앞서서 마음은 먼저 세상을 떠나 태초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태초는 먼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태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태초로 갈 때에만 우리의 마음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넘쳐나게 되었을 때에 배우자를 대면하는 동안 온전한 기쁨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를 대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나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태초의 충전소에서 나를 충전시키지 않고는 사명은 불가능합니다. 사명은 충만하여 넘쳐나게 된 기쁨으로 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이 세상 것을 갖지 않는 것은 결코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질 수 없어서 갖지 않는 것이거나 가질 필요가 없어서 갖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태초로 가서 하나님으로 충전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희생할 수도 없고 손해 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우정을 권고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얻고 싶은 것이 없을 정도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우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치는 자들이 용서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희생을 각오한 마음과는 다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태초로 마음을 보내어 이미 자신의 본전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충만하게 가진 상태에서 육신이 죽는다

해도 그것은 손해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넘쳐나는 기쁨이 있었기에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 상태도 안 좋고 자녀는 말을 안 들어서 마음이 괴로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괴로운 이유는 마음으로 빨아들여서는 안 되는 대상을 빨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스위치 켜진 진공청소기가 되어서 닥치는 대로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기가 빨아들여서는 안 될 것을 빨아들이면 고장이 나듯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태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태초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태초만이 우리 마음의 충전소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넘쳐나게 될 때에 비로소 기쁨과 평강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기쁨과 평안을 지속하는 방법을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이 방법은 결코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약속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넘치게 되는 은혜는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보배는 곧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보잘 것 없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다른 것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을 지속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곧 마음이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가 태초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스위치가 켜진 진공청소기와 같은 마음을 세상에서 하늘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원한다면 또한 하나님을 가지고자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태초를 향해서 본전을 찾았다면 그것을 한 차례의 사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을 지속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넘치기 전까지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웃에게까지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에 모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만해져서 이윽고 넘치게 된다면 이제 그 넘쳐나는 뜻이 배우자와 자녀에게로 직장 동료들에게로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넘쳐나는 은혜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충전소인 태초로 돌아가서 마음을 충만하게 채운 다음에 이 세상은 넘쳐나는 부분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다시 마음에서 하나님이 부족해진다면 또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태초로 되돌아가서 마음 채우기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십자가를 생활

화함을 통하여 태초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보배를 담듯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인격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를 선물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태초만이 충만함과 넘침의 충전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서울과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아스팔트 위를 걷고 있어도 태초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기적 같은 사실에 감사합니다. 질그릇이 보배를 담듯이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태초로 가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심으로 충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를 채우고 넘쳐남으로써 사명과 복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